



종이컵포장 산업의 2000년 회고와 2001년도 과제



한국종이컵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조 성 응

1. 종이컵 포장산업의 2000년 회고

(1) 2000년도 개황

일천한 역사의 우리나라 종이컵산업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수요가 확산되면서 소비가 급신장 되어 태동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현재는 약230여 개 업체가 연간 80억개 이상의 식품위생용 지기류(종이컵, 종이접시, 종이트레이, 종이도시락, 종이라면 용기, 종이 아이스크림용기 및 기타 위생용기 - 이중종이컵이 80%이상)를 생산하여 국내의 수요에 충당하고 있다.

21세기를 열었던 2000년 한해는 종이컵산업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가지적 성과가 미래산업으로의 전망을 밝게 해준 반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자성으로 거듭나야 할 부담 또한 안겨준 해로도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초창기 자동판매기용 6,50Z, HOT COUP으로 출발한 종이컵산업은 이제는 수요층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100여 종 이상의 규격, 기능, 형상이 각기 다른 다채로운 제품들이 용도에 맞춰 개발 생산되는 등 실적, 양적 성장을 이룩하고 제지, 기계, 화성, 인쇄, 포장 등 관련산업과 함께 동반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된다.

최근 국내에서 개발한 종이라면용기 성형기의 대 일본수출로 우리나라 종이컵산업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느낌이다.

이렇듯 높은 기술에 의한 품질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아시아는 물론 중동유럽에 까지 제품 및 플랜트 수출을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원인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시각이 일부 남아 있어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은 애석한 일이다.

없다. 요약하건대 2000년도 종이컵 산업은 불경기로 인한 수요정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차분히 2001년도를 준비하는 기술축적과 도약을 위한 시간적 이유로 생각한다면 그 또한 소득이 될 것으로 회고하고자 한다.

(2) 성취된 일

종이컵산업이 2000년도에 성취할 수 있었던 일로는 합성수지제 라면 용기의 종이대체화와 폐기물 분리배출품목지정, 그리고 국산 종이라면 용기 성형기 일본수출을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용후 버려지는 폐종이컵(WASTE)을 쓰레기 배출시의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재활용율을 크게 높게 된 점을 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종이컵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지(SCRAP)는 고가로 거래되어 전량 화장지 원료로 재활용하였고 외식업소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종이컵 재활용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종이컵은 분리수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중 다행히 2000년도부터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범위에 포함 되므로서 다른 지류와 같이 재활용되어 화장지, 골심지, 판지심면 등으로 재생하고 있음은 껍이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지수입을 줄이는데 일조하여 자원낭비를 억제하고 환경훼손을 크게 줄이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었던 일로 국산종이 라면용기 성형기의 일본수출을 들고자 하는데 그동안 국산종이컵 성형기의 수출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중동에 국한되는 실정이었으나 미국, 독일산 종이컵 성형기만 수입하던 일본시장에 국산 종이컵 성형기가 수출되어 호평을 받고 있

으며 상당량의 추가주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기술개발에 힘쓴 나머지 난이도 높은 4각형컵개발에 성공하는 등의 여세로 미루어보아 세계 최고 성능의 국산종이컵 성형기 출현도 꿈만은 아닌 듯 하다.

(3) 가장어려웠던 일

종이컵업계는 과거부터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과당출혈경쟁이 빈발하여 많은 업체가 수없이 부침을 거듭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으며, 특히 2000년에는 제지산업의 불황으로 원지메이커간 컵원지 판매경쟁이 가열되어 덤핑판매가 상행하게 되었으며 원재료와 제품의 동반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극심한 혼란과 수익 악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원가절감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상식이하의 저평량 원지가 경쟁적으로 생산 출하되었으며 종이컵의 가격 또한 부당하게 축소하는 변칙행위가 늘어나 품질저하로 인한 소비자 불신유발을 우려하였으나 다행히 저평량 원지의 생산은 자제되었으나 종이컵규격의 부당축소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종이컵제조공장의 적정규모의 구조개편과 함께 2001년도 과제로 남게되었다.

(4) 미결과제

종이컵산업이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업체의 난립과 과잉설비를 막기 위하여 현행 신고제인 기타위생용품 제조업신고를 허가제로 환원하는 일과 현실과 맞지 않는 시설, 설비기준을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 강화하여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며,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제사업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일 외에도 제품개발과 품질향상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부서의 상설 그리고 종이컵으로 총칭하는 식품위생용 종이용기를 지기로 통일하는 일, 환경친화적 제품임을 확고하게 인정받는 일 등 많은 미결과제가 있으나, 완·급을 가려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토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2. 종이컵 포장산업의 2001년도 전망과 과제

(1) 2001년도 전망

2001년도의 종이컵 산업은 품질의 양극화 현상과 함께 구

조개편을 위한 합종연횡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대형업체 중심으로 소비자 용구충족을 위한 제품의 고급화 추세가 계속되는 반면에 부가가치가 낮은 경쟁제품은 원가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치수를 줄이거나 평양을 낮추는 등으로 품질저하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중국에는 퇴출이 불가피한 업체가 나올 것이나, 전체적인 품질기준은 상향평준화로 갈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생존전략 차원에서 저 비용 고효율에 합당한 기입합병이나 공동단지, 공동상품 또는 시설의 공동이용이나 공동구판매 등 다각적인 방안모색을 통하여 적정한 규모의 구조개편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2) 2001년의 과제

우선 환경 친화적 제품임을 입증시키는 일이 입력신장의 최우선이라는 취지 하에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수거의 정착 못지 않게 수용성코팅제의 개발과 실용화가 매우중요하므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노력의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수용성코팅제의 독성검사를 마치고 물상실험에서도 양호한 반응을 얻은바 있어 실용화를 위한 경제성 검토에 착수하였으므로 머지않아 지난한 과제 한가지를 해결하는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2001년의 과제로 채택, 새로운 도약의 기폭제로 삼고자 한다.

(3) 과제해결 대책

종이컵 등 지기류의 제조에 있어서 접착 및 발수제로 사용되는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는 물성은 훌륭하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재활용시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는 점을 감안, 해리시 물에 쉽게 용해되면서도 안전성과 물성이 탁월한 수용성코팅제에 대한 실용화 접근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미 기술선진국에서는 실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수용성코팅제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과제해결의 대책이 될 것으로 믿는다.